

노인대표 초청 신년 오찬

- 인사말 -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필준 회장이 원체 정중히 인사하시고 말씀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노인 여러분 잘 모시려 노력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대통령이 노인 정책에 자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토론을 함께하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책도 많이 내놓았습니다. 다시 짚어보니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부족한 만큼 아직도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잘만 돌아가는 게 아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모시겠습니다.

경제가 잘 되어야 하고, 경제가 잘 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복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입니다. 이제 노후 되면서 점차 불안해져 있는데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하느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노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야 미래를 믿고, 국민이 기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국민이 됩니다. 노인들의 복지는 확실히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노인 분들은 지난 날 우리 한국의 경제기적을 일으

킨 분들이십니다. 정치도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제일의 업적을 이룬 여러분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해나가도록 제도와 인식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저의 일입니다. 대체로 노인은 65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한 5년 지나면 말석에 가서 앉게 됩니다. 제 개인의 이해관계를 갖고 정책하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딱 2가지는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집을 팔았습니다. 새 집을 살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집을 살 때까지, 집값이 못 올라가도록 꼭 붙잡겠습니다. 저도 노인이 되면 심심하고, 걱정도 많고, 몸도 아프고, 용돈도 없고, 외롭지 않도록 보람 찾아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있는 동안 제 문제는 할 수 있는 한 챙겨놓고 저도 나중에 그 배를 타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김근태 장관도 1~2년 차이, 저와 비슷한 처지인데, 저랑 같이 합시다. 노인 정책에 관해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주시고 채찍질, 독려 해주십시오. 정부가 힘이 빠져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고,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안 합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대통령이 힘이 없으면 ‘하십시오’ 해도 ‘돈이 없다’ ‘애로가 있다’ ‘좀 빠르다’ 자꾸 이렇게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 정책 말고도 제가 잘 모실 테니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